

李退溪의 學問과 日本에 끼친 영향**

福田殖*

I.

李退溪(1501~1570)의 이름은 滉, 처음의 字는 季浩, 후에는 景浩로 고치다. 退溪·退陶·陶翁·溪翁·陶叟라고 칭한다. 연산군 7년 11월 25일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현 온혜동에서 태어나 선조 3년 古稀의 해 12월 8일 아침 평소 사랑하던 매화 나무 화분에 물을 주게 하고 臥席을 정돈하여 부축을 받아 일어나 儒家답게 앉은 채 돌아가셨다.

李退溪는 李栗谷과 나란히 조선조를 대표하는 二大儒이다. 고려조 말기에 주자학이 전해져 1392년에 重臣 이성계가 추대되어 왕위에 올라 조선조가 세워져 「抑佛揚儒」를 건국이념으로 하고 특히 程朱學을 신봉하는 방침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중에서 李退溪나 李栗谷이 배출된 것이다. 조선조 창건에서 약 100년여 경과하고 있었다.

姜在彦氏는 조선조 창건시의 특색에 관하여,

조선조는 그 건국이념을 「崇儒排佛」로 하여 儒敎色을 사상, 정치, 문화, 풍속에 이르기 까지 침투하여 갔다. 조선조의 전왕조였던 고려 시대에 불교는 「修身을 위한 것, 유교는 「治國」을 위한 것으로서 병존한 것과는 크게 다른 바이다.¹⁾

* 九州대 교수

** 퇴계학 부산연구원, 『퇴계학논총』 창간호(1995) 게재논문

1) 「朝鮮通信使と ■の 浦一兩國間 文化交流の一齣一」 107頁(『江戸時代の 朝鮮通信使』所收, 毎日新聞社 1979)

라고 말하고 있다.

李丙燾氏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抑佛揚儒, 是麗末以來, 儒者共通的思想, 太祖起自武人, 終爲儒臣(如鄭道傳, 南閻: 趙浚)所推戴, 多被其思想之影響, 故因其奏議, 稍加制限於佛教, 設度牒之制, 禁濫造寺社.²⁾

테조나 晩年の 세종과 같이 불교를 신앙한 군주도 존재하였으나 「崇儒」主義는 변하지 않고, 유교를 장려하고, 학교를 일으키고 科擧法을 실시하는 유교국가가 조선조의 기본적인 성격이었던 것이다.

李退溪는 조선조나 일본에 있어서 주자 이후 제1인자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주자학자이다. 퇴계가 처음으로 주자의 학 즉 성리학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17, 18세 경 같으며, 19세 때는 『性理大全』을 얻어 성리학의 내용을 처음으로 이해하였다고 문인의 기록에서 말한다.

先生自言, 十九歲時初得性理學大全首尾二卷, 試讀之不覺心悅而眼開, 玩熟蓋久漸見意味似得其門路, 自北始知性理之學體段自別也.³⁾

『性理大全』 중의 「太極圖說」을 읽은 퇴계는 자립적으로 우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듯한 자기충실감을 의식한 것이 틀림없다. 「太極圖說」은 세계의 시초와 만물의 생성을 설명하여 인간존재의 이상형태를 말한北宋의 周敦頤의 書이다. 후에 주자가 顯彰하여 宋學(=朱子學)의 가장 중요한 書로 되었다. 인간은 어떻게 본래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과 인간으로서 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퇴계에게 하나의 명확한 해답이 주어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어서 『大學』을 배웠을 때에 『心經附註』에 마주쳐 「始知心學之淵源, 心法之精微, 故吾平生信此書如神明, 敬此書如嚴父⁴⁾」라고 하였다. 퇴계는

2) 『韓國儒敎史略』, 92頁 (亞細亞文化社, 1986年)

3) 「退溪先生言行通錄」, 卷2, 類篇, 學問第一(『增補退溪全書』, 4) 23頁

이 책에서 영원한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심정의 질서와 심정의 논리를 발견했다고 생각된다. 주자학은 또 道統을 존중하여 도덕적 천재인 성인을 지향하는 학문이기도 했다.

43세 때 그는 처음으로 『朱子文集』을 얻어 읽었다. 이것을 精讀하여 주자의 서간문의 節錄과 주해에 주력하여 이루어진 책가 『朱子書節要』이다. 퇴계의 사상, 행동, 문장은 모두 주자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문인이 「日用之間, 語默動靜, 辭受取豫, 出處進退之義, 無不脗合於是書(朱子書)」⁵⁾라고 적은 것과 같고, 『朱子書節要』는 『自省錄』과 함께 이해의 중요한 문헌인 것이다.

퇴계의 학문적 활동은 50세 이후 활발하게 된다. 鄭秋巒의 「天命圖說」의 개정이나 『延平答問』의 교정(53세), 『易學啓蒙傳疑』의 완성(57세), 『朱子書節要』, 『自省錄』의 완성(58세), 奇高峯과의 四端七情 理發氣發論爭의 시작(59세), 『宋元理學通錄』의 稿 완성(63세), 『聖學十圖』(68세)의 進講 등이 그 주된 것이다.

퇴계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官路에 나아가 43세로서 성균관의 司成으로 승진하나 同年 展墓를 이유로 고향에 돌아와 그 후 58세때 까지 혹은 職을 辭하고, 혹은 召命에 응한 것 20수회에 이르렀다고 한다. 인종, 명종의 초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에서는 九死에 一生을 얻은 일도 있어 퇴계는 退藏의 뜻을 굳히다. 고향의 兎溪를 퇴계라고 고쳐서 自號로 한 것은 46세의 일이었다. 그러나 퇴계는 儒者였지 隱者는 아니다. 고려 말기의 宰臣 安珦의 백운동서원에 賜額賜田을 나라에 청하여 서원교육에 주력하는 등 사공쇄신을 위해 진력하고⁶⁾, 또 만년에 관직(大提學, 知經筵의 重職)에 就하여 時務六條를 상소(68세)하여 儒家로서 經世濟民이라는 중요한 정치실천을 잇는 일은 없었다.

퇴계는 謙退하고 仁厚한 성격으로 都會의 喧騷보다 山林의 靜謐을 사

4) 同上, 24頁

5) 同上, 26頁

6) 李佑成氏は 退溪의 書院創設運動을 「書院과 通한 性理學의 土着化」라고 지적하다. 『韓國の 歴史像-亂世を生きる人と思想-』(平凡社, 1987年) 208頁

랑하는 분이였다. 그것은 그 자신이 「我本山野質, 愛靜不愛喧⁷⁾」라고 하는 바와 같았으나 한편 그에게는 「我欲挾天風, 遊遊崑崙山⁸⁾」이라는 매우 氣宇壯大한 기개를 보이는 상상력이 풍부한 세계도 있었다.

李退溪는 朱子(1130~1200) 歿後 300년후에 태어났다. 고려조 말기에 전래한 주자학은 元代 주자학이었으며 퇴계가 접한 주자학은 元代, 明代의 주자학이었다. 퇴계가 19세 때에 읽어 학문적 지향이 道學(성리학)으로 정해지는 계기가 된 『性理大全』은 明의 成祖 永樂帝가 文學의 臣 胡廣 등에 명하여 편집시킨 것으로 永樂 13년(1415년)에 『五經大全』, 『四書大全』과 함께 완성시킨 책이고, 明代 주자학의 교과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開卷 第一에 「太極圖」가 있고 주자의 주석을 중심으로 宋元 諸儒의 說을 망라하고 있다. 퇴계가 『性理大全』 다음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心經附註』이다. 이것들을 보아도 퇴계가 元·明의 주자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을 잘 알 수 있다.

결국 퇴계는 『朱子文集』에 의해 주자의 참 정신을 파악하여 조선조 제일의 주자학자가 되었으나 퇴계학에 심학적 요소가 보이는 것은 元·明의 주자학의 수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四七辯」이 因疑而相講究⁹⁾하는 窮理의 실천으로서도 보다 더 중점을 둔 것은 動靜을 通貫하는 「主敬의 功¹⁰⁾」이라고 하는 存養의 側面이었다. 이와 같은 사상적 경향은 宋末의 眞德秀에게서 元代의 許衡, 明代의 薛瑄에게 다같이 볼 수 있는 현상이고 窮理보다도 存養에 중점이 두어져 따라서 居敬을 제일의 공부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주자를 尊信하는 퇴계는 주자가 이단(佛敎, 老莊)을 脫却하여 正學(傳統敎學으로서의 유학)으로 향하는 계기를 만든 李延平의 학문에 강한 관심을 가져 『延平答問』의 跋을 써서 顯彰하였다. 『延平答問』의 主內容은 정통과 이단의 문제와 程門의 楊龜山→羅豫章→李延平으로 이르는

7) 退溪先生文集 卷1, 和陶集飲灑二十首其五(『增補退溪全書』一) 71頁

8) 同上, 其2

9) 同上, 卷12 「答柳仁仲希春」

10) 同上, 卷14 「答李叔獻珥」別紙

學問授受의 秘傳이 쓰여져 있다. 그 秘傳이란 靜坐하여 未發의 中을 기른다는 방법이며 誠敬의 공부를 쌓아서 洒落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퇴계가 「能히 주자의 道를 배웠다.¹¹⁾」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근거이다.

II.

일본의 문화가 조선반도를 경과하여 전래한 문화에 의하여 형성된 면이 극히 강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傳承에 의하면 4세기말의 應神天皇의 시대에 백제로부터 王仁이 『論語』 등을 가지고 와서 일본에 귀화하여 고대를 통하여 학문의 祖로 되었다고 한다. 또 6세기의 중엽 欽明天皇의 시대에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한다. 그 외 문물, 제도, 복식, 회화, 製陶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특히 李退溪의 주자학이 일본의 江戸시대에 끼친 영향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16세기말에 壬辰의 亂(1592년), 丁酉의 亂(1597년)이 일어났다. 조선조와 일본과의 사이의 전쟁이었다. 이것은 양국간의 우호 친선을 파괴하는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조에서 간행된 圖書가 舶載되어 조선조의 학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인쇄혁명과 사상혁신을 야기시킨 것이다.

壬辰의 亂이 일어나기 2년전의 선조 23년 庚寅(1590년)에 正使 黃允吉, 副使 金誠一, 書狀官 許篈을 대표로 하는 이른바 조선통신사가 來日하였다. 金誠一(鶴峯)은 柳成龍(西厓) 鄭述(寒岡)와 나란히 退門의 三傑이라고 일컬어진 분이다. 金鶴峯은 來日中 藤原惺窩와 詩의 應酬를 하였으므로 그 때 李退溪의 일을 들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¹²⁾

11) 『碩水先生遺書』 卷10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퇴계 歿後 20년 경과한 시기에 일본에 처음으로 퇴계의 존재가 알려진 것이 되나 확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書記官의 許箴은 退門의 高弟 柳希春(眉巖)의 제자로서 藤原惺窩는 朝鮮 國使 許山前(箴)과의 만남에 의하여 신유학에 대한 마음의 눈이 열렸을 것이라는 설도 있어 여기에는 퇴계의 모습이 짙게 엮보이는 것이다.

藤原惺窩는 李退溪의 『天命圖說』이나 퇴계 校刊의 『延平答問』을 읽고 있고, 林羅山은 퇴계의 『天命圖說』, 『朱子書節要』를 읽고 있으나 「羅山에도 惺窩에도 李退溪의 本領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¹³⁾ 『自省錄』, 『退溪文集』을 읽는 일이 없었다. 따라서 山崎闇齋와 같이 李退溪를 존신하여 이에 경도하는 風은 아니었다.¹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근세 유학의 開祖인 藤原惺窩와 德川幕藩 體制의 이론적 구축자인 林羅山이 다같이 朝鮮船載本에 의하여 주자학을 배운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李退溪의 주자학은 특히 山崎闇齋의 주자학에 가장 강한 영향을 끼쳤다. 闇齋는 퇴계의 『自省錄』, 『朱子書節要』, 『退溪文集』을 읽어 주자학의 연구를 깊게 했다. 闇齋가 퇴계를 거쳐 주자에 이른 과정에서 주자학설의 진의가 해명해 짐이 많았다고 했다.¹⁵⁾ 이것은 幕末 明治期の 崎門學者 楠本碩水에게도 말할 수 있으며 崎門學派에게는 佐藤直方派를 비롯하여 공통의 현상이 보인다.

闇齋는 말한다. 「朱子書節要, 李退溪平生 精力盡在此矣, 退溪文集全四十九卷, 豫閱之, 實朝鮮一人也¹⁶⁾」라고. 江戸시대 300년을 통하여 闇齋만큼 퇴계를 깊이 연구한 학자는 달리 없다고 한다.¹⁷⁾

江戸시대에는 조선통신사가 12회 정도 來日했으나 통신사의 來訪 때

12) 松田甲 『韓日關係史研究』 508頁 (成進文化社, 1982년)

13)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3 頁 (東京大學出版會, 1965년)

14) 同上 201頁

15) 同上 序 2 頁

16) 『文會筆錄』 卷20

17) 阿部吉雄 『李退溪』 65頁 (文教書院 1944)

마다 종종 李退溪가 화제로 되어 일본과 조선조와의 마음을 잇는 羈絆이었다고 지적되고 있다.¹⁸⁾

山崎闇齋學派 이외에는 大塚退野(1677~1750)를 비롯한 熊本實學派의 학자가 李退溪를 존신하는 것에 특히 현저한 현상을 나타낸다. 특히 幕末에 활약하는 横井小楠(1809~1869)이나 幕末 明治期에 활약하는 元田東野(1818~1891)는 大塚退野의 學을 그리워하고 李退溪를 존신했다. 小楠은 퇴계를 明의 薛瑄과 나란히 『古今絶無之眞儒는 朱子以後此二賢에 그친다.¹⁹⁾』라고 말하여 『自省錄』의 「第一須先將世間窮通得失榮辱利害, 一切置之度外, 不以累於靈台, 既弃得此心, 則所患蓋已五七分休歇矣²⁰⁾」라는 글을 사랑했다고 한다. 퇴계는 세간 사람의 욕구하는 일체의 것을 가지고 천하의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그 고상하고 고귀한 형태의 금욕이야말로 생을 최고로 충실케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금욕적 도덕은 생의 충실감 혹은 강도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또 대장부의 이룩하는 바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되었을 것이다. 小楠은 학문의 본령은 퇴계의 이 말에 있다고 했다고 한다.²¹⁾ 元田東野는 明治天皇 侍講이 되어 明治 이후 일본의 교육방침에 강한 영향을 끼친 분이다.

幕末로부터 明治期에 있어서 가장 깊이 체험적으로 李退溪의 학문을 섭취한 것은 楠本碩水(1832~1916)일 것이다.

碩水은 말한다. 「李退溪善學朱子, 觀其朱子書節要, 可以見矣」²²⁾, 「李退溪野皆善得朱子家法」²³⁾, 「闇齋則能究朱子之學, 退溪則能學朱子之道, 退溪文集及年譜, 言行錄皆不可不讀」²⁴⁾, 「朝鮮諸儒, 退溪以前折衷於退溪, 退

18)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472頁

19) 山崎正董 『横井小楠』 遺稿篇 本壓一部宛書翰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480頁所引)

20) 『退溪先生自省錄』 (日本刻版) 下 321頁 答南時甫彦經 『退溪先生文雄』 卷14 所收

21) 『横井小楠』 遺稿篇 徳富一敬宛書翰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481頁所引)

22) 『碩水先生遺書』 卷8 2頁表(겉)

23) 同上 23頁裏(속)

24) 同上 卷10 23頁裏(속)

溪以後無出於退溪之外者」²⁵⁾라고 한다. 碩水의 시에서 「山人獨耽靜, 焚香坐茅亭, 流水鳴石澗, 琤然人靜聽」²⁶⁾라고 하였다. 碩水는 明治維新 이후, 時流를 타는 것을 굳이 거절하여 崎門學派의 하나의 주자학자로서 자기의 신조에 따라 궁지를 가지고 살아 나갔다. 碩水은 名利吟에 「求名則得名, 求利則得利, 所以世間人, 營營求不置, 一念苟焉, 足爲心術累, 透了此兩關, 如可全吾義, 丈夫期大成, 須且尙其志, 請看嶺頭松, 終年含晚翠」²⁷⁾라고 하였다. 碩水은 名과 利라고 하는 兩關에 대한 執看, 악착같이 구하여 마지않는 생각 번뇌는 모든 生을 유익하게 이끌어야 할 창조적인 힘의 작용을 촉구하지 않고 역으로 방해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러한 집간 속에 생명의 쇠퇴를 보기 때문이다. 名利의 兩關에 대한 적절한 단념과 淸澄하고 용기있는 무관심이야말로 生의 그 자체의 깊은 기쁨에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다. 「流水」나 「嶺頭松」 등은 碩水의 「全吾義」라는 내적인 무한한 기쁨에 이어지는 풍부한 원천이고, 자유롭고 평안한 生의 보람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도연명을 사랑하고 세속을 벗어나 「天真」²⁸⁾을 보려고 한 李退溪의 心境에 이어지는 것이 있다.

碩水은 明治維新 이후 文明개화가 진보하는 가운데 전통문화는 무시되어 文明이 본질적으로 공리적으로 되어가는 시대상에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시류를 타고 영광을 잡는 것을 거부하고 외면적으로는 패배의 자세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는 山野에 獨居하여 스스로 믿는 學의 자득에 勵進한 것이다. 그러한 碩水의 硬質의 志操와 완고한 태도는 그대로 날카로운 시대 비판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阿部吉雄씨는,

「일본의 주자학은 幕藩體制의 안정화에 기여했으나 동시에 그 체제의 타파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주술적 합리주의의 추진력이 되어 학문이

25) 同上 卷11 22頁裏(속)

26) 同上 卷2, 2頁表(겉)「間坐」詩其2

27) 同上 卷4, 2頁裏(속)

28) 「退溪先生文集」卷1 和陶集飲酒 20首其2

나 사상을 재빨리 종교교단의 지배에서 이탈시키는 힘으로 되었으나 동시에 일본인의 도덕적 심정을 심화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이와같은 주자학의 사상은 朱晦庵에게서 李退溪를 거쳐 山崎闇齋에 이르러 드디어 발휘되어 민족의 활력의 원천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云云」²⁹⁾라고, 일본 주자학의 특색과 李退溪의 영향에 대하여 간결하게 진술되어 있다. 또 아부씨는 李退溪를 제 2의 王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³⁰⁾

주자학은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수 세기 이상에 걸쳐 학술문화의 支柱로 되어 왔다. 특히 江戸期の 학술문화에 대한 李退溪의 주자학의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今後라도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더욱 연구를 깊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9)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序 5頁

30) 阿部吉雄 『李退溪』 序說 2頁